

#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황종귀\*

충북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Hwang, JongGui

Education Center of Educare Teacher Chungbuk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among married men and wome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are different between gender. For married women the positive communication with spouse strongly had positive effect o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hile destructive conflict strongly had negative effect on women's marital stability. Otherwise, married men's positive communication with spous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emotional support of family-of-origin strongly had effect on men's marital stabilit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motional support from families of origin have a direct effect on needs for affection and autonomy, positive communication, destructive conflict patterns, sexual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Therefore, the results could be useful resources for family counselors and researchers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 for married couples.

**Keywords** :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emotional support of family-of-origin, affection and autonomy needs, positive communication, conflict patterns, sexual satisfaction

### I. 서론

최근의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형태, 기능,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역할이 불분명해져 현대가족은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으로 변화한 현대사회에서는 부부의 애정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리, 별거, 이혼 등의 문제를 일으켜 가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관계는 가족생활 전체의 핵심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족체계가므로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은 부부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7년 혼인건수 388,591건 중 이혼건수 91,159건으로 혼인에 대한 이혼율이 24%였는데, 2007년에는 혼인건수 345,592건 중 이혼건수 124,590건으로 36%를 나타내어 10년 만에 이혼 증가율이 1.5배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08). 2007년 한 해 동안의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7.0명인데 반해, 이혼율은 2.5명으로 나타나 약 2.5명이 결혼하고 1명이

\* Corresponding author: Hwang, JongGui  
Tel: 043-261-3423, Fax: 043-275-7618  
E-mail: kwi63@paran.com

이혼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의식의 변화,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표면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현대가족에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과 안정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이 혼재해 있어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부부들도 많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혼율로 현재 결혼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현재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결혼만족도는 우리나라 가족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제한점이 있다. 더욱이 이혼율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 상호관계적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Kurdek, 1994).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사회환경적 요인은 결혼연령, 교육, 수입,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족생활주기, 직업, 경제적 환경이라는 외적 압력의 상황적 요인, 원가족의 영향 요인 등으로 밝혀져 있다(Holman *et al.*, 1994).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보다 원가족의 특성이나 결혼 후에도 지속되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결혼생활의 질적인 측면에 더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Aaron *et al.*, 2005). 또한 Kelly와 Conley(1987)는 결혼생활의 장기적 연구에서,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가족 환경적 요인과 같은 원가족 영향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자신이 성장한 원가족내에서의 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자율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에 더 만족해하고 부부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성향이 높았음을 지적해 주고 있어(전춘애, 박성연, 1994), 원가족 요인이 성인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초기에 대해 비교문화적 고찰을 한 Topham *et al.*(2005)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결혼연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원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원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볼 문제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선행연구는 또한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개인적 특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왔다(Larson & Holman, 1994). Lewis와 Spanier(1979)가 문헌적 고찰연구에서 찾아냈듯이, 신경증적 행동과 같은 정신적 건강요인이나 감정적 건강과 자아개념과 같은 인성특성이나 대인관계 기술이나 보수성과 같은 행동요인 등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는 신경증, 정서적 건강, 정신건강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lackburn *et al.*, 2004). 그러나 Stanley *et al.*(2002)은 다른 어떤 개인적 특성보다 원가족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 결혼생활에 잔존하는 애정욕구와 자율욕구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나 안정성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애정과 자율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체계 이론의 관점으로는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욕구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다.

의사소통과 갈등패턴과 같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어 왔다. 즉, 선행연구는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으며(Denton *et al.*, 2001), 파괴적 갈등패턴은 이혼이나 별거를 향한 주관적인 경향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결혼안정성을 가장 잘 예측해 줌을 보여주고 있다(Gottman & Driver, 2005).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성관계 문제가 이혼의 제 1 원인이 됨에 따라 부부간의 상호관계적 요인인 의사소통과 파괴적 갈등패턴, 그리고 성만족도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inchliff & Gott,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14년 이하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62.7%라는 통계(통계청, 2008) 자료를 바탕으로 결혼기간 14년까지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문헌적 고찰을 토대로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기혼남녀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성차에 따라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부부교육 및 상담 현장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만족도와 안정성

우리나라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이 1984년 이후에 발표되었으며, 문헌전반에 걸쳐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환경적인 요인(최현실, 1988; Holman *et al.*, 1994), 개인적 특성 요인(DeMaris & MacDonald, 1993; Schafer *et al.*, 1996), 상호관계성 요인(Kurdek, 1994)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상황적 요인, 원가족의 특성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영희, 1999), 결혼연령, 교육, 수입,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가족생활주기와 직업, 경제적 환경의 외적 압력과 같은 상황적 요인, 원가족의 특성 요인이 포함된다. Couillard (1990)는 원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 수준이 부부 모두 높을 때 결혼적응이 가장 높은 반면, 정서적 건강수준이 부부 모두 낮을 때 결혼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원가족 특성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수준뿐 아니라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Fine, 1988). 또한 결혼기간이 14년 이하일 때 가장 많은 이혼율을 보이고,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이 전반적인 결혼기간에 비해 가장 낮아진다는 Gottman과 Levenson(2000) 그리고 우리나라 이혼통계에 의하면, 결혼생활 14년 이하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62.7%라는 통계(통계청, 2008) 자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연수를 14년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원가족의 특성이나 부모의 과잉간섭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더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주고(Benson *et al.*, 1993; Kelly & Conley, 1987)

있기 때문에 원가족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둘째,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의 관련요인인 개인적 특성은 신경증적 행동과 같은 정신적 건강, 정서적 건강, 자아개념, 대인관계기술, 보수성과 같은 인성적 특성 등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성이나 감정지수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결혼생활의 만족과 안정성에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Lewis & Spanier, 1979). 더욱이 정서적 안정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개인적 특성이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ykstra, 1996).

Bentler와 Newcomb(1978)는 개인적 특성은 일반적 요인보다 더 많은 설명력과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예측인자로 나타난 반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거의 회귀분석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만족과 안정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의 연구들은 파괴적인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행동은 배우자의 인성특성의 파생물인 것으로 밝히고 있어 개인적 특성과 부부의 관계성 측면은 상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인 애정적 욕구와 자율욕구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중요한 예측인자인 동시에 부부의 관계성 과정을 통해 결혼만족과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결정하는 예측요인 중 상호관계성 요인은 부부간 상호작용이라는 관계성 측면으로 그 중요성은 이미 부각되고 있으나 상호관계성 과정에 관련된 개념이 불명확하여 상호관계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Gottman (1994)이 이혼 예측 요인을 밝혀내면서 의사소통과 파괴적 갈등패턴은 상호관련성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결혼만족도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낸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두 개념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있다(Gottman & Notarius, 2000; Stanley *et al.*, 2002; Whitton *et al.*, 2002). 또한 가족연구의 접근방법에서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공통 변인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부간의 애정관계, 그리고 부부의 성생활로 나타나 부부의 성생활 만족은 결혼생활만족과 건강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해 주고(송정아, 1995) 있어 건강한 부부들은 성생활을 그들의 전반적인 상호관계 유지와 친밀감 유지에 영

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Ammons & Stinnett, 1980). 이에 본 연구는 결혼만족과 안정성을 이해하는데 원가족 특성인 원가족의 정서지지, 개인적 특성요인인 애정과 자율욕구, 역동적인 상호관계성 요인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행동, 그리고 성만족도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 1) 원가족의 정서지지

원가족의 경험과 관련한 연구는 원가족의 특성 요인이나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결혼생활의 질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 보다 더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enson *et al.*, 1993; Kelly & Conly, 1987). Belsky 와 Pensky(1990)의 연구에서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정도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한 배우자들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mato, 1991). 이처럼 원가족과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원가족의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79년 이후의 연구는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도 높다는 Lewis와 Spanier(1979)의 가설을 계속 지지해왔다.

1930년대에 결혼한 집단에 대한 장기적 연구에서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같은 원가족 특성이 결혼만족도나 행복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Kelly & Conley, 1987; Vaillant, 1978). 부모가 정신적으로 불건강하고, 신경증적 수준이 높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수록 자녀의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이혼할 확률이 높았다(Vaillant, 1978). 더욱이 이혼한 여성의 대부분은 가족간의 갈등과 긴장이 많고, 가족간에 애정이 부족하며, 불안정한 가족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반면 어머니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남자들의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원가족의 원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처음부터 반대한 결혼은 결혼생활의 문제점이나 이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hyte, 1990). 그러나 연구자들

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상태보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모의 갈등이나 원가족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원가족의 특성이 결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을 명백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가족의 특성을 정서적 지지로 평가하여, 원가족의 정서지지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애정과 자율욕구

Huston *et al.*(2001)의 장기적 연구를 통하여 결혼생활의 불행이나 이혼에 관련된 부부관계 요인을 애정의 감소, 관계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증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감소로 밝혀내었다. 또한 Gottman(1994)은 실험실 연구에서 신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 이혼을 예측하는 주요 요소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하고, 이는 애정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애정은 부부 전반적인 결혼만족과 안정성의 중요한 변수로, 깊은 정서적 유대와 서로 보살피고 매력을 느끼고 신뢰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이러한 애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어 왔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되게 발달한 성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며(유은희, 1991), 원가족내에서의 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자율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현재 자신의 결혼에 더 만족해하고 부부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성향이 높았다(전춘애, 박성연, 1994). Bowen(1978a) 역시 건강한 성숙의 두 가지 주요과제는 자율성과 친밀감이라고 보았고, 개별화와 애착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들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해준다(Kenny & Donaldson, 1991). 따라서 부부가 친밀감과 독립성을 발달시키는 정도는 흔히 부부 각자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분리된 개인적 정체감을 얼마나 발달시켰는가에 의해 좌우된다(Bowen, 1978a; Meyer, 1980). 원가족 안에서 자율적 관계를 견고하게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원가족에서 자이분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 자신이 어린시절에 충

족하지 못한 애정이나 자율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부부간의 친밀감과 결속감을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보다 관계의 욕구를 우선시해야 하고, 청소년기 정체감인 나 중심에서 우리의식(wenness)을 새롭게 확대시킬 수 있는 정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Wallerstein, 1995).

Bowen(1978b)은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확고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 정체감을 잃지 않고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갈등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부부의 갈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Nelson, 1987).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원가족에서 충족되지 못한 애정이나 독립적인 자율욕구 수준이 높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자아분화정도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균형정도 뿐만 아니라 원가족의 부모와 형성된 밀착과 이탈정도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건강이나 관계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선행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애정욕구와 자율욕구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3) 의사소통과 갈등패턴

최근 결혼생활 만족도와 안정성을 다루는 대부분의 분석들은 결과론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요소로 부부간의 상호관계성 측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결혼생활에서 많은 갈등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갈등 그 자체보다는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식이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부가 어느 정도 일치하여 갈등을 적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실제 효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식을 구분하여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행동을 독립된 변수로 이해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호관계성 요인 중 갈등해결행동을 의사소통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영희, 1999; Stanly *et al.*, 1995).

결혼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지니는 역할은 매우 크며, 부진한 의사소통 기술은 불만족한 부부들에게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는 스트레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았다(Filsinger & Thoma, 1988).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의견일치의 빈도가 높고(Schaap *et al.*,

1988),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 개인적 문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Kirchler, 1988), 부정적인 감정을 덜 주고받으며(Gottman, 1993), 배우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Noller, 1984).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행한 부부는 행복한 부부보다 더 파괴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보인 반면, 행복한 부부는 부부간의 사회적-감정적 관계에 만족하여 사랑과 애정표현의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였으며(Schaap *et al.*, 1988), 불행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보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 더 솔직히 털어놓는 경향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Noller & Callan, 1989). 이처럼 불행한 부부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의사소통 행위는 비판, 불평, 조소적인 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것이었다(Ting-Toomey, 1983). 다시 말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명령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창피를 주고 변명을 많이 하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쉽게 동의하며 대화 중에 유우머와 웃음이 많았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는 갈등시의 의사소통행동에 대해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차이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행한 부부나 행복한 부부 모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주제는 같았다. 그러나 불행한 부부는 갈등의 빈도가 더 많았고 갈등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사소통기술-결집모델에서는 배우자간의 갈등유발의 원인을 한 배우자나 두 배우자 모두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라고 보면서(Burleson & Denton, 1997), 불행하거나 실패한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실패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Gottman과 Krokoff(1989)는 부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서적 방어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보다는 회피하거나 침묵을 지키면서 피곤하고 지루하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반응을 지체하는 등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방식을 나타낼 때 장기적인 결혼불만족과 더 직결된다는 것을 밝혔다(Smith *et al.*, 1990). 이는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을 동의, 협상, 유우머로 해결하고 만족도가 낮을 때 부부는 갈등으로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갈등을 회피 또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해결하게 된다. 또한 아내는 갈등이 생기면 다투려하고 남편은 회피하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영희, 1999).

이와 같이 부부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보고 되는 주제이자 부부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Geiss & O'Leary, 1981), 성만족도(김요완, 2000)와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Hahlweg *et al.*, 1984).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은 다차원적으로 문제해결 양식 혹은 갈등해결 패턴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성만족도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으로 변화한 현대사회에서는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강조되고 있으며, 성이 서로의 애정과 신뢰를 나누는 수단이 되고 있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성생활은 부부에 따라 성이 주는 즐거움과 애정을 더해주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부부가 성생활을 영위할 때, 서로의 생각이나 성관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성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에서 성적인 불만족은 결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여 가족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서선영(2002)은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도 결혼생활의 질을 강조하고 있어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성만족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보고한다.

결혼생활의 정서적·사회적·성적·지적·여가적 영역에서 함께 경험하는 과정을 친밀성으로 정의하고 각 영역에서의 친밀성은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결혼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지적한다(Harper *et al.*, 2000). 또한 지속적으로 성생활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배우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점차 결혼관계를 악화시키며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의 증상이 생긴다. 이처럼 성관계는 감정, 신체적 건강의 중요한 양상으로 성만족은 결혼만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Young *et al.*, 2000). 김요완(2000)은 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성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감정의 노출정도가 높은 유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의 성만족도는 폐쇄적이고 감정의 노출정도가 낮은 유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들의 성만족도보다 높았음을 지적해준다. 이것은 성만족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언어와 정서적 친밀감이 부부간 성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일치도는 성관계 빈도, 선호하는 체위와 성 테크닉, 성관계 시간, 성에 대한 신념, 가치관, 성에 대한 태도 등에서 부부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일치와 조화는 성관계의 동기뿐 아니라,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Hurlbert *et al.*, 2000),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선행연구는 밝혀주고 있다(Landis, 1975). Marokoff와 Gilliland(1993) 역시 기혼자들에게 성생활의 만족이 결혼만족도와 직결되며, 부부간의 성생활 부재는 별거나 이혼의 가능성과 관계가 깊다고 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성만족도의 중요성을 지지해주고 있다(Donnelly, 1993). 또한 이는 전반적인 성만족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부의 성생활에서 성적 일치는 매우 중요하다(이경옥, 2003; Hurlbert *et al.*, 2000)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성생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부부간의 성만족도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결혼안정성의 관련 변인으로서 결혼만족도

결혼만족은 결혼안정과 해체 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며(현경자, 2004; 현경자, 김연수, 2002) 결혼관련 연구는 행복한 부부와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Gottman & Notarius, 2002). 이에 결혼만족은 결혼안정의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서 결혼안정성은 결혼불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보아, 비록 결혼해체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닐지라도 부부가 결혼생활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주관적인 경향으로 결혼불안정성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Booth *et al.*, 1983) 결혼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로부터 결혼안정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불안정상태에서 유지되는 결혼생활은 당사자들에게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우울증이나 신경증의 행동장애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Wang & Crane, 2001). 그럼에도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보다 명확하게 해석되고 있지 않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결혼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불행한 결혼이라도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혼만족도와 안정성 간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대표적인 이론 모형은 Lewis & Spanier(1979)의 이론, 그

리고 Thomas & Kleber(1981)의 이론모형으로 두 이론 모두 교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Lewis & Spanier(1979)는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워야 안정된 결혼이 유지된다는 것을 주장하나 결혼안정성은 결혼만족도 외에도 결혼에 대한 대안과 결혼을 유지시키는 외적 압력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Thomas & Kleber(1981)는 Lewis & Spanier(1979)의 주장과는 다르게 결혼생활의 유지를 강조하는 사회규범 등과 같은 외부압력이 크면 불만족스런 결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는 약화되며 결혼 이외의 대안적 매력에 증가하면 결혼불만족과 결혼불안정성 간에는 강한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에 관한 상반된 입장의 이론적 틀은 제시해주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위의 두 이론을 근거로 하여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의 중요한 관련변인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대전, 청주, 광주, 울산 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결혼생활 14년 이하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기혼남녀 각 1,200부로 총 2,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총 1,245부(기혼남성 617부, 여성 628부)였다.

#### 2. 측정도구

##### 1) 원가족의 정서지지

원가족의 정서지지는 Lopez *et al.*(1986)의 FSS(Family Structure Survey)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측정하였다. 원래 FSS 척도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자녀의 역할전이, 부모의 과잉보호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 영향력이 크다고 밝혀진(Bowen, 1978b; Fine, 1988; Wamboldt & Reiss, 1989) 정서적 분위기를 택하여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가 긍정적임

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기혼여성 .76, 남성 .80으로 나타났다.

##### 2) 애정과 자율욕구

애정과 자율욕구는 Christensen과 Sullaway(1984)의 Relationship Issues Questionnaire를 수정·번안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과 자율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가족치료자에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과 자율의 욕구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애정욕구 기혼여성 .88, 남성 .89, 자율욕구 기혼여성 .80, 남성 .83으로 나타났다.

##### 3)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Christensen과 Shenk(1991)의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의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고, 상담현장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총 7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기혼여성 .83, 남성 .80으로 나타났다.

##### 4) 갈등패턴

부부간의 갈등패턴은 Gottman(1994)이 이혼예측 연구에서 실험관찰한 갈등패턴을 기초로 하여 Stanley *et al.*(2002)이 성공적인 부부관계를 위한 의사소통과 갈등연구를 위해 고안한 Destructive Conflict Pattern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파괴적 갈등패턴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기혼여성 .90, 남성 .88로 나타났다.

##### 5) 성만족도

성만족도는 빈도, 선호하는 체위와 성 테크닉, 성관계 시간, 성에 대한 신념, 가치관, 태도, 만족감 등을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Hurlbert(1993)의 HISC(Hurlbert Index of Sexual Compatibility)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신뢰도에 문제를 보인 2문항을 제외시

키고 본 연구에서는 2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성일치도가 높아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기혼여성 .92, 남성 .91로 나타났다.

#### 6)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Locke와 Wallace(1959)의 Marital Adjustment Test 척도를 수정하여 결혼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Gottman과 Notarius(2000), Karney와 Bradbury(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 만족도, 비교 만족도, 대안만족도로 결혼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기혼여성 .83, 남성 .84로 나타났다.

#### 7)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은 이혼이나 별거의 상태와 더불어 이혼이나 별거를 향한 주관적인 경향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Weiss와 Cerreto(1980)의 Marital Status Inventory를 김영희(1999)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이 척도는 '나는 배우자와 심하게 싸우고 난 뒤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혼이나 별거문제에 대해 친구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와 배우자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한다.'와 같이 이혼이나 별거를 향한 경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기혼여성 .78, 남성 .77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자료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과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배경, 성차를 위해 t-test, F-test, Duncan 사후검증, 그리고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조사된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은 30세 이하가 21.3%, 31세-35세 55.6%, 36세-40세 20.9%, 41세 이상은 2.2%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 11.7%, 공무원 8.6%, 사무직이 10.1%로 나타났고 자영업 7.6%, 생산/기술직 3.1%, 전업주부가 58.9%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43.0%였으며, 대졸이상이 57.0%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각각 16.9%와 24.7%였고, 불교 9.6%, 무교 48.8%로 나타났다. 혼전 직업 유무에서는 94.9%가 직업이 있었고, 5.1%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7년 미만이 62.7%였으며, 7년 이상이 37.3%였다.

결혼 전 교제기간은 1년 미만이 24.4%, 1-3년 미만이 52.5%였으며, 3년 이상은 23.1%로 나타났다. 총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8.6%, 200-300만원이 35.7%였으며, 300만원 이상이 45.7%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2.6%로 가장 많았으며 대가족이 7.4%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23.5%, 2명이 68.7%, 3명이상이 7.8%였다. 수입비교에서는 남편이 많은 경우가 81.0%로 대부분이었고, 아내가 많은 경우 6.6%, 12.4%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원인은 생활습관 20.5%, 성격 19.6%, 돈 17.8%, 부모문제 9.0%, 자녀문제 6.5% 순으로 나타났다.

#### 2) 기혼남성의 일반적 특성

조사된 기혼남성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은 30세 이하가 8.1%, 31세-35세 40.8%, 36세-40세 39.1%, 41세 이상은 12.0%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 11.6%, 공무원 12.9%, 사무직이 38.4%로 나타났고, 자영업 24.9%, 생산/기술직 10.6%, 무직 1.6%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30.3%였으며 대졸이상이 69.7%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각각 19.3%와 21.4%였고 불교 7.1%, 무교 52.2%로 나타났다.

결혼 전 교제기간은 1년 미만이 21.8%, 1-3년 미만이 54.3%였으며, 3년 이상은 23.9%로 나타났다. 총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9.8%, 200-300만원이 33.8%였으며, 300만원 이상이 46.4%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7



년 미만인 62.7%였으며, 7년 이상이 37.3%였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91.2%로 가장 많았으며 대가족이 8.8%이었다. 자녀수는 1명이 18.6%, 2명이 72.5%, 3명이상이 8.9%였다. 수입비교에서는 남편이 많은 경우가 82.6%로 대부분이었고, 아내가 많은 경우가 6.5%이며, 10.9%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원인은 돈이 19.6%, 성격이 17.1%, 생활습관 16.6%, 자녀문제 8.6%, 부모문제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2.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0에서 .62이고, 회귀분석에서 VIF 지수를 탐색해 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요인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은 <표 2>과 같다. 긍정적 의사소통( $\beta=.35, p<.001$ ), 성만족도( $\beta=.24, p<.001$ ), 파괴적 갈등패턴( $\beta=-.19, p<.001$ ), 애정( $\beta=-.10, p<.01$ ) 및 자율욕구( $\beta=-.10, p<.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50.8%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 성만족도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괴적인 갈등패턴을 보이고 애정 및 자율욕구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관련된 요인은 <표 3>과 같다. 파괴적 갈등패턴( $\beta=-.38, p<.001$ ), 결혼만족도( $\beta=.29, p<.001$ ), 원가족 정서지지( $\beta=.09, p<.01$ )가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표 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10*							
③	-.12**	.15**						
④	.15**	-.32**	-.22**					
⑤	-.17**	.27**	.28**	-.47**				
⑥	.18**	-.32**	-.29**	.56**	-.46**			
⑦	.12**	-.34**	-.30**	.62**	-.52**	.57**		
⑧	.19**	-.24**	-.25**	.39**	-.56**	.39**	.52**	
M	3.26	2.00	2.27	2.87	1.72	2.93	2.77	3.15
SD	.49	.63	.63	.53	.52	.43	.66	.69

\* $p<.05$ , \*\* $p<.01$

- ① 원가족 정서지지                      ② 애정욕구                                      ③ 자율욕구                                      ④ 긍정적 의사소통
- ⑤ 파괴적 갈등패턴                      ⑥ 성만족도                                      ⑦ 결혼만족도                                      ⑧ 결혼안정성

<표 2>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beta$	t값	R <sup>2</sup>	Adj-R <sup>2</sup>	F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원가족 정서지지	-.02	-.84	.508	.503	105.25***
	애정욕구	-.10**	-3.05			
	자율욕구	-.10**	-3.13			
	긍정적 의사소통	.35***	9.58			
	파괴적 갈등패턴	-.19***	-5.61			
	성만족도	.24***	6.58			

\*\* $p<.01$ , \*\*\* $p<.001$

〈표 3〉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t값	R <sup>2</sup>	Adj-R <sup>2</sup>	F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	원가족 정서지지	-.09**	2.61	.403	.398	58.64***
	애정욕구	-.02	-.58			
	자율욕구	-.03	-1.01			
	긍정적 의사소통	.01	.18			
	파괴적 갈등패턴	-.38***	-9.74			
	성만족도	.01	.31			
	결혼만족도	.29***	6.51			

\*\*p<.01, \*\*\*p<.001

며, 이러한 변인들은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대해 40.3%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파괴적 갈등패턴을 덜 보이고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원가족의 정서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7에서 .52이고, 회귀분석에서 VIF 지수를 탐색해 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3.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요인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은 <표 5>과 같다. 긍정적 의사소통(β=.27, p<.001), 애정욕구(β=-.24, p<.001), 파괴적 갈등패턴(β=-.16, p<.001), 성만족도(β=.14, p<.001), 원가족의 정서지지(β=.10, p<.01), 자율

〈표 4〉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22**							
③	-.17**	.07						
④	.23**	-.45**	-.21**					
⑤	-.34**	.23**	.39**	-.33**				
⑥	.36**	-.27**	-.29**	.42**	-.49**			
⑦	.34**	-.45**	-.28**	.52**	-.44**	.46**		
⑧	.61**	-.06	-.21**	.19**	-.29**	.28**	.14**	
M	3.26	1.86	2.32	2.85	1.78	2.97	3.09	2.81
SD	.53	.58	.63	.49	.51	.41	.62	.40

\*p<.05, \*\*p<.01

- ① 원가족 정서지지                      ② 애정욕구                              ③ 자율욕구                              ④ 긍정적 의사소통
- ⑤ 파괴적 갈등패턴                      ⑥ 성만족도                              ⑦ 결혼만족도                              ⑧ 결혼안정성

〈표 5〉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t값	R <sup>2</sup>	Adj-R <sup>2</sup>	F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	원가족 정서지지	.10**	2.94	.438	.433	77.36***
	애정욕구	-.24***	-6.83			
	자율욕구	-.09**	-2.63			
	긍정적 의사소통	.27***	7.21			
	파괴적 갈등패턴	-.16***	-4.30			
	성만족도	.14***	3.76			

\*\*p<.01, \*\*\*p<.001

<표 6>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beta$	t값	R <sup>2</sup>	Adj-R <sup>2</sup>	F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	원가족 정서지지	.60***	17.12	.412	.408	59.56***
	애정욕구	.05	1.35			
	자율욕구	-.10**	-2.93			
	긍정적 의사소통	-.01	-.05			
	파괴적 갈등패턴	-.09*	-2.18			
	성만족도	.07	1.82			
	결혼만족도	.14**	3.31			

\*\*p<.01, \*\*\*p<.001

욕구( $\beta=-.09, p<.01$ )순으로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43.8% 설명해주고 있다. 즉,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 성만족도가 높으며 원가족의 정서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괴적인 갈등패턴을 보이고 애정 및 자율욕구가 높을수록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에 관련된 요인은 <표 6>과 같다. 원가족의 정서지지 ( $\beta=.60, p<.001$ ), 결혼만족도( $\beta=.14, p<.01$ ), 자율욕구( $\beta=-.10, p<.01$ ), 파괴적 갈등패턴( $\beta=-.09, p<.05$ )이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에 대해 41.2% 설명해주고 있다. 즉,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지지를 많이 받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율욕구가 높고 파괴적 갈등패턴을 많이 보일수록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이 성차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결혼생활 만족과 안정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에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의사소통이고, 결혼안정성에는 파괴적 갈등패턴이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의사소통이고, 결혼안정성에는 원가족의 정서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혀주었다. 즉,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는 긍정적 의사소통이나 파괴적 갈등패턴과 같은 상호관계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는 원가족의 정서지지가나 긍정적 의사소통 변인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 성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파괴적인 갈등패턴을 보이고 애정 및 자율욕구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안정성은 파괴적 갈등패턴을 덜 보이고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원가족의 정서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 성만족도가 높으며 원가족의 정서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파괴적인 갈등패턴을 보이고 애정 및 자율욕구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안정성은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지지를 많이 받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율욕구가 높고 파괴적 갈등패턴을 많이 보일수록 결혼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성만족도는 기혼남녀 모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의 중요한 관련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은 파괴적 갈등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가족의 정서지지, 개인적 특성인 애정과 자율욕구, 관계적 특성인 긍정적 의사소통, 파괴적 갈등패턴, 성만족도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임을 밝혀준 것에 많은

의의가 있어 미래 연구는 물론 부부 상담이나 교육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혼남녀 모두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의사소통이고,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에는 파괴적 갈등패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에는 원가족의 정서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의사소통이나 파괴적 갈등패턴과 같은 상호관계적 요인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밝혀준 김영희(1999)와 Hahlweg *et al.*(198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 의사소통은 기혼남녀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지만 기혼여성에게 있어 파괴적 갈등패턴은 이혼이나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에는 원가족의 정서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는 원가족의 정서지지만 애정욕구나 자율욕구와 같은 개인적 특성 변인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지지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안정된 특성으로 남아있어 자녀의 개인적 욕구나 대인관계적 요인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Amato(1999)의 주장을 입증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Amato(1999)의 설명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부모들이 딸보다 아들에게서 원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원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자율성이 균형되게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부부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셋째,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 성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안정성은 파괴적 갈등패턴을 덜 보이고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원가족의 정서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 성만족도가 높으며 원가족의 정서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안정성은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지지를 많이 받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

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의사소통은 성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김요완, 2000)으로 성만족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언어와 정서적 친밀감이 부부간 성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혼남녀간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들의 이러한 차이는 관계적 요인인 긍정적 의사소통과 파괴적 갈등패턴뿐만 아니라 원가족의 정서지지, 애정과 자율욕구, 성만족도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고려하여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현장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부 모두 긍정적 의사소통을 높이고 파괴적 갈등패턴을 줄이는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부부 각자가 가지는 개인적 특성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제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점을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 있어 부부를 쌍으로 한 비교를 통해 성차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안정성 및 이에 관련된 요인들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는 이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한 모형 안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래 연구에서는 부부를 쌍으로 하여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적 특성인 애정·자율욕구와 상호관계성요인인 긍정적 의사소통, 파괴적 갈등해결행동, 성만족도에서의 성차를 한 모형 안에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에 원가족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원가족의 정서지지만을 살펴보고 있어 원가족의 다양한 특성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원가족의 영향력을 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가족치료 현장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애정욕구와 자율욕구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후속 연구는 이러한 개인욕구가 세대에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살펴보고 부부가 자라온 원가족의 영향력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모의 개인욕구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로 본 연구결과는 부부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부 모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높이고 파괴적 갈등패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부부 각자가 가지는 개인적 특성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부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주제어 :** 결혼만족도와 안정성, 원가족의 정서지지, 애정과 자율욕구, 긍정적 의사소통, 갈등패턴, 성만족도

### 참 고 문 헌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 *한국생활과학회지*, 5(2), 53-73.
- 김요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지식 수준의 성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영. (2002).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1995). 한국 도시부부의 건강한 결혼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69-78.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옥. (2003).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박성연. (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최현실. (1988).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8). 2007년 혼인·이혼통계결과.
-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 현경자, 김연수. (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9, 225-263.
- Aaron, G. Roy. B., & Rohini, V. (2005). A prime time for marital/relational intervention: A review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literature with treatment recommendation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 319-336.
- Amato, P. R. (1991).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recall of childhood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21-34.
- Amato, P. R. (1999).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as young adults. In E. 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pp. 147-163). Mahwah, NJ: Erlbaum.
- Ammons, P., & Stinnett, N. (1980). The vital marriage: A closer look. *Family relations*, 29(1), 37-42.
- Booth, A, D, Johnson., & Edwards,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Belsky, J., & Pensky, E. (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 J. Stenven-Hinde(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Oxford, 193-217.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 663-672.
- Bentler, P. M., & Newcomb, M. D. (1978). Longitudinal study of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53-1070.
- Blackburn, R., Renwick, J. D., Donnelly, J. P., & Logan, C. (2004). Big five or big two? Superpredicate factors in the NEO five factor inventory and the antisocial personality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957-970.
- Bowen, M. (1978a).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owen, M. (1978b).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Christensen,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3), 458-463.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 Los Angeles.
- Couillard, G. C. (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2(2), 187-213.
- DeMaris, A., & MacDonald, W. (1993). Premarital cohabitation and marital instability: A test on the unconventional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99-407.
- Denton, W. H., Burlinson, B. R., Hobbs, B. V., Von Stein, M., & Rodriguez, C. (2001). Cardiovascular reactivity and initiate/avoid patterns of marital communication: A test of Gottman's psychophysiologic model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4(5), 401-421.
- Donnelly, D. (1993). Sexually inactive marriages. *Journal of Sex Research*, 30, 171-179.
- Dykstra, L. H. (1996). *Marriage: Owner's Manual*. Kroshka Books.
- Filsinger, E. E., & Thoma, S. J. (1988). Behavioral antecedents of relationship stability and adjustment: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85-795.
- Fine, M. (198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in family of origin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 15, 51-57.
- Geiss, S. K., & O'Leary, K. D. (1981). Therapist ratings of frequency and severity of marital problems: Implic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515-520.
-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 Erlbaum.
- Gottman, J. M., & Driver, J. L. (2005). Dysfunctional marital conflict and everyday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3(3), 63-77.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Gottman, J. M., & Notarius, C. I. (2000). Decade review: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27-947.
- Gottman, J. M., & Notarius, C. I. (2002). Marital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and a Researc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Family Process* 41(2), 159-197.
- Hahlweg, K., Revenstorf, D., & Schindler, L. (1984). Effect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on couples'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53-566.
- Harper, J. M., Schaalje, B. G., & Sandberg, J. G. (2000). Daily Hassles, Intimacy, and Marital Quality in Later Life Marriag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18.
- Hinchliff, S., & Gott, M. (2004). Managing a sexual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not wanting it: Experiences from women who have lost sexual desire, 18th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Health Psychology Society, Helsinki, Finland.
- Holman, T. B., Larson, J. H., & Harmer, S. L.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 46-52.
- Hurlbert, D. F. (1993). A comparative study using orgasm consistency training in the treatment of women reporting hypoactive sexual desire.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9, 41-55.
- Hurlbert, D. F., Apt, C., Hurlbert, M. K., & Pierce, A. P. (2000). Sexual compatibility and the sexual desire-motivation relation in females with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Behavior Modification*, 24(3), 325-347.
- Huston, T. L., Caughlin, J. P., Houts, R. M., Smith, S. E., & George, L. J. (2001).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237-252.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 Bulletin*, 118(1), 3-34.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40.
- Kenny, M. E., & Donalson, G. A. (1991). Contribution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9-488.
- Kirchler, E. (1988). Marital happiness and interaction in everyday surrounding: A time sample diary approach for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375-382.
- Kurdek, L. A. (1994).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2), 21-242.
- Landis, P. H. (1975).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Jersey: Prentice-Hall.
- Larson, J. H., &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228-237.
- Lewis, R. A., & Spanier, E.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pp. 268-294). New York: Free Press.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2-56.
- Marokoff, P., & Gilliland, R. (1993).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 43-53.
- Meyer, P. (1980). Between families: The unattached young adult. In E. A. carter & M. McGoldrick(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p. 71-92). New York: Gardner Press.
- Nelson, T. S. (1987). *Differentiation: An Investigation of Bowen Theory with Clinical and Nonclinical Couples*. The University of Iowa, Doctoral, Dissertation Abstracts.
- Noller, P. (1984). *Nonverb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eraction*. Oxford: Pergamon.
- Noller, P., & Callan, V. J. (1989). *Communication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family studies conference. Ballarat. Victoria.
- Schaap, C., Buunk, B., & Kerkstra, A. (1988). Marital conflict resolution. 203-244. In P., Noller & M. 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pp. 203-204). Clevelandon: Multilingual Matters.
- Schafer, R. B., Wickrama, K. A., Wickrama, S., & Patrici, K. M. (1996). Self-concept disconfirm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1), 167-177.
- Smith, D. A., Vivian, D., & O'Leary, D. (1990). Longitudinal prediction of marital discord from premarital expressions of affe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790-798.
- Stanley, S. M., Markman, H. J., Whitton, S. W.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 Thomas, D. L., & Kleber, J. E. (1981). Comment on Marital Quality. A Review o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780-782.
- Ting-Toomey, S. (1983). An analysis of verbal communication patterns in high and low marital adjustment group.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9, 306-319.
- Topham, G. L., Larson, J. H., & Holman, T. B. (2005). Family-of-origin predictors of hostile conflict in early marriag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27(1), 101-121.
- Vaillant, G. E. (1978).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VI. Correlates of successful marriage and fatherhood. *Journal of Psychiatry*, 135, 653-659.
- Wallerstein, J. (1995). *The Good Marriage: How and Why Love Lasts*. New York: Houghton Muffin.
- Wallin, P., & Clark, A. (1963). A study of orgasm as a condition of women's enjoyment of coitus on the middle years of marriage. *Human Biology*, 35, 131-139.
- Wamboldt, F. S., & Reiss, D. (1989). Defining a family heritage and a new relationship identity: Two central

- tasks in the making of a marriage. *Family Process*, 28, 317-335.
- Wang, L., & Crane, D. R.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tability, Nuclear Family Triangulation, and Childhood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4), 337-347.
- Weiss, R. L., & Cerreto, M. C. (1980). The marital status inventory: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issolution potential.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2), 80-85.
- Whitton, S. W., Stanley, S. M., & Markman, H. J. (2002). Sacrifice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exploration of relevant research and theory. In H. T. Reiss, M. A. Fitzpatrick & A. L. Vangelisti(Eds.), *Stability and Change in Relationship Behavior across the Lifespan*(pp. 156-18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yte, M. K. (1990). *Dating, Mating, and Marriag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Young, M. G., Denny, T. Young., & Luquis, R. (2000).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2), 73-84.

접 수 일 : 2009. 03. 27.

수정완료일 : 2009. 07. 15.

게재확정일 : 2009. 07. 23.